

☆ 중, 고배당 집중 분석 ☆

7월 6일 일요일

부산 4경주 (중, 고배당)

경기 거듭할수록 선행 자신감 되찾고 있는 5번 김민배가 결승전에 진출했는데, 혼란스러운 틈을 타 기습 내지 찢히기 타이밍만 정확하게 잡아낸다면 끝까지 버티면서 이번의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도 있겠다.

5-2 5-7 5-6 5-1

광명 14경주 (중, 고배당)

해볼만한 상대 만난 3번 이태운이 원하는 자리 잡지 못한다면 기습선행으로 허를 찢을 수 있는데, 이왕이면 같은 호남팀이자 후미 견제 능력 탁월한 6번 김배영을 달고 갈 수 있는 만큼 조심스레 김배영을 축으로 공략해볼만 하겠다.

6-1 6-5 6-3 6-2